

1999.12. 동경 '전쟁과 여성 국제세미나' 발표문

테러의 체현(Embodiment of Terror) :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
평화시/전쟁시의 성별화된 폭력(gendered violence)¹⁾

마리아 올루지(Maria B. Olujic)

요약 : 폭력에 대한 연구(특히 전쟁시의 성적 강제)는 강간이 개별 몸에 대한 전쟁의 필연적인 산물임을 강조한다. 전쟁이 훨씬 뚜렷하게 사회문화적 역동성을 만들기 때문에, 폭력(특히 성별화된)을 이해함에 있어, "전쟁시" "평화시(일상)"라고 정의되어진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별화된 폭력은 단지 전쟁시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일탈의 형태가 아니다. 그것의 근원은 평화시에 만들어진다. 일상의 상징들(상징적 대화들)이나 은유들은 평화시에 존재하는 권력의 지배(domination)와 공격성의 유형을 보여준다. 전쟁시에, 이러한 몸에 대한 상징들과 그것의 부산물들은 공(식)적인 폭력을 합리화하고 해명하는데 사용된다. 【그 상징들은 공적 폭력과 굴욕을 설명하고 의미화 하기 위해 작동된다】. 이 연구는 일상의 권력의 통제와 공격성이 전쟁시에 어떻게 발현되는 가에 대해 논하고 있다. 평화시에 개인의 몸(특히 몸이 가지는 섹슈얼리티와 재생산)은 일상적인 권력 통제와 공격성의 상징이 된다. 개별 몸의 은유들은(평화시에 사회 질서의 무의식적 억압을 재현하는) 전쟁시에 의식적 실체가 된다. 개별 몸은 전쟁시에 사회적 몸으로 변형된다(집단 강간이나 인종청소, 혈통의 정화 등). 그런 후에 사회제도(의학, 종교, 정부 기관)는 사회적 몸에 정치학을 작동한다(일상 생활의 통제와 정의, 서구의 군사적 개입을 위해 정치적 강간을 사용하는 것 등). 전쟁 후, 최종적으로 변형과 은유는 사회 안에서 사회를 방향 전환하고 원상 복귀 한다. 그리고 개인 몸은 다시 한 번 평화시에 수용되는 사회적 질서로써, 권력통제와 공격의 초점이 된다.

동유럽의 붕괴는 군사적 분쟁의 폭발 때문이었다. 1990년에 시작된 전 유고 내전은 확실히 동구와 서구사이에 있는 적대적 분쟁 지역 중에서 영향력 있는 지역을 드러냈다. 발칸에서의 새로운 양상의 폭력에 대한 해석은 많은 인류학적 관심을 촉발했다. 냉전의 끝은 2차 대전 이후로 유럽에서 보이지 않았던 폭력을 양산하면서, 오랜 지정학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前 유고에서의 공적 폭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시의 폭력 문화뿐 아니라 그 지역

1) 이 글은 1996년 계간 "의료 인류학(Medical Anthropology)"이라는 저널에 실린 글입니다. 원래 이 논문은 여성인권 캠프 '일상화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인권' 분과의 교재로 쓰고자 한 것입니다. 이 논문은 현재 보스니아, 르완다, 동티모르 등의 분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강간 등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 문제를 일상성, 문화, 권력, 전쟁, 남성성 등의 문제로 분석한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은 '일상화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인권' 분과의 윤정연(전반부)과 정희진(후반부)이 나누어 했습니다.

에서의 평화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그 둘은 뗄 수 없어 서로 연관되어 있다. Desjarlans 와 Kleinmen은, 문화적 관념이 폭력적 무질서가 존재하는 상황에 적용될 때는 문제적인 개념이 됨을 지적한다. 연구자들이 사회적 몸과 물리적 몸(구체적인 몸)이 교차하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적 경험을 집합적 행위와 연결해야 한다(D and K, 1994). 전유고에서, 폭력의 동력, 의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별관계에 있어서의 폭력과 명예가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별화된 폭력은 전쟁시 폭력과 구분되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의 뿌리는 평화적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전쟁 행위로 성별화된 폭력의 사용은 평화시와 전쟁시의 문화를 동시에 연구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성별화된 폭력은 사회적 질서에 대한 교란 도구로써 몸, 성 명예에 대한 문화적 은유를 활용한다. 전쟁 강간을 일탈로써 기술하는 연구자들의 작업과는 다르게, 나의 연구는 전쟁폭력이 이미 존재했던 사회 문화적 역학의 절정임을 보여준다. 정말로 전쟁 강간은, 남/동유럽 지역에서 평화시에 여성의 몸에 부착시킨 명예, 수치심, 섹슈얼리티의 개념이 없었다면, 여성에게 고통주기와 테러의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중앙유럽문화의 보편화된 명예/수치심에 대한 문화적 특징이 없었다면, 테러 정책뿐 아니라 전쟁 강간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방법론과 연구 현장

1991년 12월에, 크로아티아에서 전쟁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나는 크로아티아로 갔고, 1993년 5월까지 과학부 소속으로 일했다. 크로아티아에서의 재직 기간은 매일 매일이 전쟁 상황으로 모든 면에서 대단히 어려웠다. 나는 1993년 여름까지 여성폭력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로써 보스니아에서의 전쟁강간을 연구했다. 나의 방법론은 희생자-생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준(準)구조적 인터뷰를 포함했다. 인터뷰는 전쟁전과 전쟁 기간 동안의 피 조사자(연구 대상)의 삶에 관한 인구학적 데이터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했다. 피 조사자는 보건 관리들과 종교적 지도자들 뿐 만 아니라,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여/남 피난민들을 포함했다. 이 통계를 위해, 나는 40명의 심층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는 인류학적 참여관찰과 생애사를 통해 보충되었다.

덧붙여 면접 조사(1,060명의 정보 제공자)는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전쟁과, 전쟁 강간, 희생자와 가해자에 관한 질문을 포함했다. 두 가지의 개방적 질문은 평화시와 전쟁시의 성적 폭력의 원인에 대한 주체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나의 데이터는, 접전 그룹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없는 지역이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경(경계) 지역의 것이다.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회교 문화는 외형적 차이의 구체성에도 불구하고, 이 세 그룹의 민속은 유사한 모티브를 가진다. 이러한 모티브들은 지역민속 안에 지속적인 교차점과 장르로 남는다.

나는 처음으로 전쟁과 정치적 상황과 관련되어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동시에 나는 내부자이면서 외부자였다. 나는 미국에서 교육받은 인류학자였지만, 나의 조상과 역사는 이 갈등 지역과 연관이 있는 크로아티아인 이었고 나에게도 크로아티안으로서의 기대가 있었다. 덧붙여, 나의 데이터에는 고난의 생존자가 말한 무서운 이미지들과 소름끼치는 이야기들이다.

평화시의 일상적 공격성과 권력통제, 그리고 전쟁

전쟁에서의 폭력의 구현은, 일상 문화에서 성에 부착된 의미들로부터 나온다. 20세기말

에 이르러서도, 평화시 여성의 성에 대한 통제는, 남동 유럽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데 용이한 의미를 만드는 것을 지속한다. 전쟁에서 여성의 명예(정조)에 대한 침해는 한 민족의 남성성에 대한 또 다른 민족 남성의 무기가 된다. 이 역학은 남동 유럽에서 슬라브 민족들의 복잡한 전통적인 문화에서 구체화된다. 여기서, 가부장 체제의 중심은 *zadruga*라 불리는 확장된 가족이다.

여성들은 남편의 가족들과 결혼했다. 따라서 그녀들은 성적 대상, 어머니, 노동자로 가치 평가되었고, 핵심적인 사회적 단위(*zadruga*)의 외부자였다. 이러한 설명은 많은 지중해 연안 주민들에게는 친숙하다: 엄격한 위계에 의한 명예와 혈연의 관습은 일상적 규범과 일관성을 규율한다. *Zadruga* 이데올로기는 현재까지 지속된다. 이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여성의 처녀성, 순결, 혼인이 최고의 미덕이며, 출산 능력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과, 이에 따른 명예/수치심의 이중 규범이다. 여성에게 있어, 명예와 수치심은 도덕성의 기본이고, 사회적으로 남편, 가족, 마을의 명성을 대표한다. 전 유고에서, 성적 습관에 관한 전통적 가치 평가는 경제적 변화나 공산주의하의 국가 정책이나, 남성들의 이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

유고 전쟁동안, 강간과 다른 형태의 성적 고난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현재도 군사정책의 하나로 적 폭력을 사용하여 고발된 군 지도층에 대한 전범 재판이 헤이그에서 진행중이다.

성적 강제에 대해 진행되는 조사가, 개별 여성에 대한 범죄로써 강간을 취급하는 것과 다르게, 많은 전쟁에서 강간은 공포의 전략으로서 사용되었다.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공포, 중국 여성에 대한 일본 군인의 강간)

그러나 이러한 전쟁에서 강간은, 유고 전쟁에서처럼 대단한 명성을 갖지는 않았다. 그것들은 사회 과학에서 연구되지도 않았다.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에서의 상황은, 남성들의 다른 그룹과의 갈등적 맥락에서의 강간을 연구할 독특한 기회를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강간 행위는 여성뿐 아니라, 그 남편, 오빠, 아버지와 희생자의 아들에게 굴욕을 준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여자를 보호하지 못한 남성들의 무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굴욕은 명예/수치심에 대한 복잡성이 존재하고, 여성의 순결이 가족과 공동체 명예의 핵심이 되는 발칸에서 특별히 강조된다.

남성은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스러워 한다. 반면에, 여성의 의무는 그 남성들의 공공연하게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수치심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공식적인, 인정은 그들의 영혼, 혈통, 명예를 상실한 남성들의 공식적 패배를 의미한다.

고문으로 인한 고통의 정치적 구성에 관한 연구에서 일레인 스키어리는, 국가의 물신화된 상징인 고문의 도구가 된 몸(고문 받은)으로부터의 정치적 의미와 상징적 가능성의 이탈과 이전에 근거하여, 고문의 과정에서의 국가 헤게모니 생성을 정의한다. 푸코처럼, 스키어리는 구가에 의해 수행된 권력통제의 양식으로써 몸의 다양성을 본다. 세 민족 사이에 공유된 문화적 의미들 때문에, 유고에서의 성적 폭력은 고문의 무기로써 특히 중요하다.

전쟁에서 개인의 몸은 그들 그룹에 대한 사회적 몸의 은유적 재현이 된다. 개인의 몸을 살인하고 불구로 만드는 것은 그의 국가를 살인하고 불구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깨끗함이나 더러움의 문화적 관념이 개입한 전쟁 강간은 섹슈얼리티와 민족적 제휴와 연관되었다. 강간으로 인한 강제 임신을 통해, 침략자들은 아버지들(침략자인)의 그룹에 속한 민족으로 깨끗한 아이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침범당한 집단의 피를 정화할 수 있다.

평화시에 성별 상호작용은 노래, 농담과 이야기들 안에서 묘사된다. *ganga*라고 불리

는 크로아티아의 민속 노래의 형태는 상징을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특정 *ganga* 의 맥락은 말의 또 다른 뜻을 갖는다(ploughing(경작하기)은 성교를 의미하고; 덩수룩한 털은 *vagina*; 좋은 페니스 등등).

강가는 남성들끼리, 여성들끼리, 그리고 때로는 함께 불려진다. 강가가 남/여 모두에 의해서 불려지기 때문에, 그것은 각 성 모두에게 중요하게 의미되는 장르로 분석될 수 있다. 강가는 또한 젊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랑과 배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여성을 노래하진 않지만, 그것들의 주요한 초점은 여성이다. 특별히 여성의 섹슈얼리티. 남성들은 보통 그들 자신의 정력과 남성성에 관한 노래를 한다. 남성들은 섹스를 원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여성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여성들은 남성의 강함에 비해 위선적으로 묘사된다. 강가에서 남성들은 상징 언어를 사용하여, 성적 대상으로써 여성을 표현한다. 예를 들면, 다음에 사용되는 언어...

1)나는 그녀를(음모를) 면도하고 자른다/나는 나의 (여인을) 면도하고 자른다.

옥수수 죽이 끓고 있는 열린 난로 위에서.

여기서, 남성들은 난로 위에서 여성의 음모를 면도하고 자름을 통해 그들의 남성다운 권력통제를 나타낸다. 난로 위의 여성의 위치는 그들이 성적인 '뜨거움' 이나 삽입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한다. 그 노랫말은 또한 혼합된 옥수수 죽에서 성적 이미지를 사용한다. 좋은 옥수수 죽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긴 나무로 된 막대기로 세심하게 짓는 것이다. 옥수수 죽이 적절히 요리되지 않는다면, 음식으로 그것을 먹을 수도 없고, 손님에게 대접할 수도 없다.

많은 민속 음악들은 옥수수 죽 만들기의 과정과 같은 은유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피는 옥수수 죽이 아니다' 같은 일상적 표현은 마치 그들이 옥수수 죽처럼 민족 그룹간에 함께 섞이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유사한 대비로, 같은 표현이 영어속담에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사용된다. 피와 옥수수 죽의 이미지는 또한 옥수수 죽의 두툼한 연장을 참조하게 한다. 남성 피가 옥수수 죽처럼 걸쭉하고 응고된 상태인 반면에, 여성의 피는 잘못 만들어진 옥수수 죽처럼 묽고 부드럽다. 여성의 피는 결혼을 해서, 그들의 친족을 떠나왔기 때문에 묽고, 반면에 남성의 피는 친족의 일부로 여전히 남아있고, 자식으로서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걸쭉하고 덩어리 진 채로 있다. 이것이 왜 딸들이 '이질적 뼈대'나 '이질적인, 운명'으로 취급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다른 종족의 재산이고, 원래의 가족에게는 가치가 없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피는 옥수수 죽이 아니다'와 '피는 물이 아니다'의 관련은 순수한 혈통의 중요성 뿐 만 아니라, 남성의 우월한 피를 나타낸다.

역사적으로, 대재앙의 상황에 관한 민요에서 영웅들은 그들의 혈족에게 편지를 썼고, 격노하여 피눈물을 적셨다. 피는 많은 '의례'에서 사용되었는데, '결의 형제'의 의식에서는 다른 사람의 손가락의 피를 빨아먹는 것으로부터, 비탄의 표현으로써 피가 나올 때까지 특정 사람의 얼굴을 핥키는 것까지 있다. 잘못된 행위는 위범자의 혈족의 일원을 죽이는 피의 응징을 받았다. 덧붙여, 한 가족에서 맨 첫 신부는 '나는 나의 피를 너보다 전에 여기에 뿌렸다'는 말로 나중의 신부에게 서열을 주장할 것이다. 피 처녀(blood virgins)에 대한 보증은 그들의 결혼식 밤에 피를 흘림으로써 믿게 된다.

앞서의 인용문에서의 음모의 면도와 자르는 이미지는 유사하게 복잡한 상징의 예이다. 남성 정보 제공자는 그 인용문을 '남성은 그가 여성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말로 해석했다. ; ‘그는 그가 병아리가 아니라 사내다운 놈임을 다른 남자에게 자랑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남자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면도’와 ‘cut’이라는 단어는 현재 전쟁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제거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예를 들면 ‘기관총의 불꽃이 적을 면도(shave)한다고 말한다’. 역사적으로 털을 면도하는 것은(특히 여성의 털) 또한 정조를 더럽힘에 대한 탄식으로 사용되었다. 2차 대전 동안에 게릴라들은 여자가 스파이라면 그녀의 머리를 면도했다.

결론적으로 면도하는 것은 소년의 머리 자르기 의식의 중요성 때문에, 회교도 지역에서 남성이 되는 나이와 할례 의식과 연관된다. 모든 것에서 cutting 과 shaving은 일반적으로 권력을 내포하며, 특히 성적 권력을 상징한다.

섹슈얼리티, 구혼, 재생산

비록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남유럽 문화에서 엄격하게 통제되지만, 조크, 노래, 격언과 기타 민요 등을 통해 여/남에 대한 광범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얘기들을 볼 수 있다. 강가에서 은유적 언어로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의가 사용되듯이, 성적 통제가 필요하지만 다른 민요에서도 여성이 성적이고 성직자들이 욕정적이라는 아이디어들이 표현된다.; 남자들은 공공연하게 성적인 힘이고, 강함이고, 자랑스러움이다. 가족의 명예와 관련된 여성의 성적 통제에 대한 이러한 고정 관념은 전쟁기간을 굴욕의 강력한 무기로 만들었다.

남성 인터뷰자의 생애사는 일반적으로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의 몰두를 드러낸다. 그러나, 남성에 대한 인터뷰는 그들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지와 서로 서로를 평가하기 위한 방식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공공연하고, 다양한 사내다움과 성적 용감함에 대한 전시에서 보여진다. 남자들은 공공연하게 그들의 남성다움과 힘을 보여주기 위해 서로서로 상상 속에서의 실제의 성적 사건들을 자랑한다. 다른 세대의 남성 피 조사자들은 공통적으로 “경쟁적 게임”을 가지고 있다. 10대들은 소를 치는 동안에 숲에서 놀면서, 그룹으로 모였을 때 누가 더 오줌을 멀리 보내는지 보이기 위해 경쟁한다. 또한 누가 더 긴 페니스를 가졌는지 경쟁한다. “지배자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평가 기술을 고안한다”고 피 조사자는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사용하기도 했다;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 사이의 간격, 손가락의 두께와 넓이, 엄지손가락의 길이 또는 손바닥의 넓이 등. 남자 인터뷰 대상자들 중 이러한 행위를 공격적인 것으로써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단지 그들 중 누가 가장 신체적으로 우월한가를 보여주는 게임으로써의 경쟁으로 본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경쟁에는 또 다른 주요한 위계적 책략이 있다. “나체의 여자를 보는 것(특히 맨살의 가슴과 음모)은 모든 젊은 남자의 욕망이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시각적인 먹이를 얻는데 굶주려 있다” 한 피 조사자는 그와 그의 친구들이 나체의 여성의 여성을 보기 위해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요일에는 일상의 옷을 바꿔 입어야 하는 것을 알았다. 물론 우리는 교회로 가기 위해 마을로부터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지도 알았고, 여자들 이 옷을 입는데 대략 얼마나 걸리는 지도 알았다. 이것은 여자의 몸을 훑쳐보기 위한 최고의 기회였다. 다른 방법은 여자가 위로 올라갈 때 사다리 아래에서 치마 밑으로 보는 것이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방식은 여자가 서있거나 어떤 노동을 할 때 마루에 유리 조각을 놓는 것이다.”

평가의 척도는 또한 여성의 성적인 경험을 평가하는데서 나타난다. 남자들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많은 방식들을 나에게 말했는데, 여자가 만일 처녀라면 여자는 잠자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의 순결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방식은 그녀의 가슴이다. 그녀가 부드러운 가슴을 가졌다면, 다른 말로 “늘어짐hanging”이라면 그것은 이미 누군가가 그녀를 못쓰게 만들었다(상처 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방식은 그녀의 오줌 누는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다. 그녀가 오줌을 넓게 싼다면, 그녀는 처녀다(pearced)는 것을 의미한다.

강간과 상징 또는 강간 놀이는 역사적으로 남유럽에서 몇몇 결혼 의식의 일부분이었다. 과거에 납치에 의한 결혼은 여성이나 그녀의 남성혈족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납치”는 그녀 부모의 찬성 없이 젊은 커플이 결혼을 허락 받기 위한 도망의 형태가 되었다. 이 주제는 또한 “chasing”이라고 불리는 구애의 형태 안에서도 작동한다.. 그것은 2차 대전 후에 보편적인 일이 되었다. 이것은 2차 대전 당시에 10대였던 젊은이들에 의해 행해졌는데, 그들은 여자를 쫓아가서, 그녀를 넘어트리고 그녀 위로 올라간 다음에 그녀를 마루 위에 눕히고, 그녀를 굴린 다음에 그녀의 가슴을 손으로 잡고, 음모를 잡아당긴다. 만약에 그것이 많은 다른 남자들이 있는데서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그를 웃음거리고 만들 것이다. 반면에 여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그 남자를 희생자로부터 떨어뜨린다. 나는 여자 피 인터뷰 대상자로부터 들었는데, 남자들은 이것을 공공연하게 자랑하고 다닌다. 종종 공격당한 여성은 그 남자가 더 진전하고자 하는 것을 거절했다.;강간 행위, 이것은 공식적으로 남자의 체면을 살려주는 방식이다.

역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젊은 남자의 관심을 끌었다면, 그녀의 명예는 불명예스럽게 되고 그녀의 모든 가족의 명예에 상처를 주게 된다. 어린 소녀들은 종종 공공연하게 그들 자신을 보호하도록 얘기된다. 예를 들면, 엄마들은 불장난을 할 것 같은 딸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모욕을 준다. 아래의 예들이 냉정해지도록 하는 가르침이다.

“네가 욕정이 생긴다면, 집계발이나 주걱을 달구어서 너에게 대라. 네가 불에 탄다면...”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불신은 또한 결혼에 있어 처녀성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결혼식후에, 첫날밤에 시트에 묻는 혈흔은 전통적으로 처녀성에 대한 증거로 전시된다. 이러한 관습은 여성이 동물 피를 사용한다든지, 빨간 페인트를 묻힌다든지 하는 등의 수많은 얘기들에서 묘사된다. 이것과 관련된 하나의 우스개 소리가 있다. 한 여성이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에 그녀의 피가 묻은 시트를 전시했다. 밖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녀는 페인트의 색깔을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녀는 우연히도 시트에 녹색을 뿌렸다. 이른 아침에 걷고 있던 두 수녀가 맨 처음에 이 널려 있는 시트를 보았다. 한 수녀가 다른 수녀에게 말을 했다. “oh, my God! 불쌍한 여인이여, 이 남자는 방광의 부레(담즙)에 삼입했구나!”

그러나 처녀의 피가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이라면, 월경 혈은 더러운 피로 얘기된다. 만약 기형아가 태어난다면(납작한 성기를 가진), 그것은 여자가 더러운 피를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된다.

중요성과 가치는 여성의 순결성, 일부일처제, 재생산에 주어진다. 그것은 현재의 보스니아-크로아티아 전쟁에서 왜 여성이 친척과 혈족에 의해 비판의 표적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공격과 폭력은, 전통적인 명예/수치심의 이데올로기를 통한 정치적인 과정과, 재산에 대한 통제를 보여주기 위한 투쟁방식이다. 왜냐하면 여성의 명

예가 남성의 명예이며, 곧 국가의 명예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공포가 만들어지는 방식 혹은 문화(전쟁시의 경우)

공포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미리 계획된 1990년 여름 다양한 형태의 위협과 공포의 전술에서 시작된 이벤트의 연속이었다. 즉 거리의 바리케이드, 마을과 시민들 머리 위로 매우 낮게 비행하는 유고슬라브 민중군(軍) 헬리콥터와 폭탄들, 대학살과 절정에 달한 전투 과정에서 개개인들에게 행해진 체포와 고문들은 이미 공포의 전주곡이었다.

1990-1991년 사이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공통적 형태의 테러는 소수민들(minority citizens)을 선별하고 검거하는 것이었다. 개인들은 그들이 지역 경찰이나 혹은 군대에 의해 체포되거나 (잠혀가지 않기 위해) "정보를 얻기 위한 대화"에 의지했다고 증언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구타와 고문을 당했고 많은 이들이 살해되었다. 1991년 여름 끝에는 탱크, 대포, 공기 폭탄, 미사일로 중무장한 포병대와 함께 암살이 시작되었다. 1992년 봄, 전쟁은 더욱 잔인해졌고 그러한 상태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국경 지대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전투 상황이 그러하다.

강가(Ganga) 민요는 크로아티아 국경 지대에서 불려진 전형적인 경우다. 전쟁 초반부터 농담과 같이 강가 민요는 대중적으로 널리 불려졌다.

(1) 내 작은 아가, 엄마의 사랑스러운 아가야,
빨리, 폭격기가 있는 내 밑으로 숨으렴. 어서.

(2) 만일 하늘의 모든 별들이 부드러운 털(pussies, 여성의 음부)이라면,
남자들은 모두 비행사가 될 꺼야.

이는 성적인 내용, 특히 폭력적인 공격을 성적인 행동으로 비유한 것이 분명하다. 보스니아에서 전쟁 전야에, 크로아티아에서는 이러한 농담이 맹렬히 퍼져나갔다. 이 농담은 (이후 발생할)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불안을 드러낸다. 전투가 반발하기 전, 다음과 같은 농담이 대중화되었다. "하소(haso)가 그의 아내 파타(Fata)에게 말했다. '탱크가 보스니아로 몰려오고 있으니, 그들을 막기 위해 거리고 뛰어나가 길바닥에 드러누워야지!' 그랬더니 파타가 대답하기를 '아뇨, 나는 보병을 기다리고 있는 걸요.'" 하소가 파타에게 그녀의 섹슈얼리티를 이용하여 탱크를 막으라고 명령한 것이고, 그녀의 대답은 보병과 함께 성적인 쾌락을 누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농담은 그녀의 섹슈얼리티가 병사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는 섹슈얼리티가 병사의 무기처럼 취급되는 현실을 부정한다.

다음의 두 번째 농담은, 전쟁 하에서 강간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 "알몸으로 집으로 돌아온 파타에게 하소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까 파타는 '저격수가 나를 가졌어'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농담은 성적, 호전적인 이미지와 신체적 상징적인 경험으로서 강간의 심각성을 무화시켜 버린다. 이러한 농담에서 여성은, 원래 그녀들을 소유한 남성들과 그 남성의 적군 모두에게 군사적, 정치적 표적의 매개물로서 묘사된다.

前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쟁 강간

前유고슬라비아에서 진행된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강간과 성적인 고문의 희생자가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1992년 9월말에 보스니아 정부에 의해 공개된 수치에

따르면, 150만 명의 인구 중에서 대략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수용소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한다. 남성과 여성은 분리 수용되었다. 남녀 모두 이 캠프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여겨지며, 그 고문에는 강간과 성적인 불구자로 만드는 고문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남성들은 그들의 여자 친척들이 강간당하는 장면을 강제로 목격해야만 했다. 같은 보고서는 최소한 14,000명의 여성들이 강간당했다고 보고한다. 이중 2,000명은 7-18세의 소녀들이며, 18-35세가 8,000명, 35-50세가 3,000명, 50세 이상이 1,000명이다.

1992년 유럽공동체(EC)의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보스니아-세르비아 병사들은 20,000명의 여성들(주로 회교도들)을 강간했다고 한다. 강간은 전쟁 중 공격에 따른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전략적 목표이며 의도적인 학대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전쟁 강간은 “인종 청소”의 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보스니아 내무부는 강간 피해자를 50,000명으로 잡고 있다. 보고된 강간 케이스들은 다양해서, 강간이 인종 말살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의 수많은 대량 강간은 보스니아 정부가 “강간 캠프”라고 명명한 곳에서 발생했는데, 정복된 여성들은 세르비아 병사에 의해 강제로 붙잡힌 상태에서 강간당했다. 많은 여성들이 두 가지 잔인한 운명 앞에 직면해야만 했는데, 살아남기 위해 강간과 고문을 반복적으로 당하거나 즉각 살해되거나 둘 중의 하나였다.

강간 캠프의 이름과 장소는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구애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태도를 반영했으나, 새로운 상황은 잔인했다. 강간 캠프는 종종 전에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의 상황과 같았다. 강간 캠프의 이름은 전통과 현대를 모두 상징했다. ‘요정의 긴 머리’같은 이름이나 ‘커피하우스 소녀’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예전에는 지친 여행자들에게 이런 이름들은 전통적이고 고풍스런 시적인 거리를 상징하거나 휴식, 즐거움을 상징했다. 그러나 분명하게, 최근 이들 캠프의 의미는 쉬는 장소 라기 보다는 스스로 육체의 욕망을 해소하려는 여성들의 사창가가 되었다. 캠프 이름이 갖는 상징은 캠프의 강제적인 성격을 은폐시키고, 여성 스스로가 그런 희생의 원인 제공자라는 이미지를 생산하는 데 기여한다.

이 스펙트럼의 다른 측면은 레이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과 같은 영어식 캠프이름이 현대 서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름은 서구의 성적인 난잡함, 방임주의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캠프는, 세르비아 남자가 처벌받지 않고 어떠한 종류의 성적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성적 학대의 면허증을 제공했다. 여성들에게는 이곳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옥이었다. 많은 캠프에서 대다수의 피해 여성들은 권총으로, 윤간 후 과다 출혈로, 혹은 수치심에 못 이겨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

강간이 회교도 병사 뿐 만 아니라 크로아티아 병사에 의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예들은 “미리 계획된 강간 캠프와 여성들은 그들이 임신할 때까지는 감금하지 않은” 개인적 사례일 뿐이라고 한 남성 응답자가 말했다.

잔학 행위들은 조직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었고 몇몇 세르비아 병사들은 그들의 상관으로부터 임무를 명령받은 증거가 있다. 정치적 수단으로서 고의로 강간하는 것은, 여성에게 고의적으로 임신시키는 인종 강간(다른 인종의 여성에게 강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적게는 6세부터 많게는 80세에 이르는 여성에게 강간한 것이다.

남자 가족들 앞에서 여성을 강간하려는 시도는 강간이 모멸, 수치심으로서 작동함을 보여준다. 비록 강간과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성 죄수들에게 서로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도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형제간 부자간의 오랄 섹스와 같은 강요된 성적 잔학 행

위에 관한 기록도 있다. 좀더 혼란 경우에는 남성 친척간에 서로를 고문하게 하는 예들이 있다. 다음은 회교도 남성의 증언을 인용한 것이다.

그들의 두 번째 심문은, 그들이(세르비아 병사들) 우리(죄수들)에게 묻는 것이었어요. 만일 우리들 중에 가족이 있냐고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일어났어요. 그 병사가 “서로 때리고 싸워라”고 말했고 그들은 서로 손바닥으로 뺨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병사가 “만족스럽지 않아. 왜 그럴까? 피가 안 나기 때문이지”라고 말하자 그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더 세게 때리기 시작했어요. 병사는 다시 말했어요. “아직 멀었어. 피가 안 나잖아. 이렇게 해봐” 그러더니 그들은(병사들) 아들을 의식을 잃을 정도로 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아무렇게나 죄수 중의 한 사람을 불러 “니 이름이 뭐냐?”고 묻고 죄수가 이름을 말하니깐 그 병사는 “그래, 니가 그 사람이야. 니에미 fucker. 여기서 죽어봐(자살해봐)”라고 말했어요. 다섯 명의 병사가 그의 머리 위로 점프하니깐 그 사람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를 죽이지는 않고 그의 귀를 잘랐어요... 그는 계속 비명을 질렀고, 피가 우리 모두에게 튀었는데도 그들은 그 사람 위에 올라타서 웃고 즐겼어요... 거기 있었던 우리들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나무 바닥에 흥건한 피를 (혀로) 핥았어요...

여성에게는 불임 수술을 시도하거나 그들을 죄수 신분으로 낙태가 불가능할 때까지 임신 상태로 붙잡아 두었다. 강간당한 여성들과 그녀의 아이들은 계속 폭력의 지배 아래 있어야 했다. 다음의 긴 인용문은 19세의 여성 사넬라(가명)로부터 들은 것이다.

네 명의 세르비아 병사가 내게 물었어요. 남자가 있었던 적이 있냐고요. 나는, 결혼할 때까지 연애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 병사들이 말하기를, “너는 회교도가 아니라 스파이다. 회교도들은 거기랑 아래를 면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와 그 나이들의 여성들은 그랬지만, 그것은 관습의 일부일 뿐이고 젊은 여성들은 그렇지 않고 강제 사항도 아니다”고 말했더니 한 병사가 나를 붙잡아 내팽개치더니 아래를 벗기고 음모를 보더니 “봐라 너는 회교도가 아니지, 니가 회교도라면 음모가 없어야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너는 회교도가 아니다. 니가 누군지 밝혀라“. “나는 회교도입니다. 신에게 맹세합니다. 어머니에게 맹세합니다. 회교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너는 회교도가 아니야“, “예, 저는 회교도입니다.“라는 식의 대화가 계속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칼을 꺼내더니 나에게 던지고 난 후 나를 마루 바닥에 눕혀 고정시키더니 도와달라며 다른 병사를 불렀어요. 그들은 웃고 떠들면서 “밀어 버려(면도해 버려)!“ , “잘라 버려“라며 웃고 떠들었어요. 그들은 면도를 하기 시작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았는지, 털을 뽑고 칼로 내 몸을 가로지르고... 그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의로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붙잡혀 있을 때, 한 사람이 내 위에 올라타고 내 다리를 올려서 나는 꿈쩍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두꺼운 천을 내 입에 쑤셔 넣고 내가 소리치지 못하게 한 다음, 언제나 와서 내 털을 뽑았어요. 내 몸을 핵 잡아당기고 나서, 나를 발로 차면서 더 세게 털을 뽑는 거예요. 후에 내가 본 것은 붉게 피멍들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내 몸이었어요... 매일 밤 그랬어요...

네 명의 세르비아 “영웅적인 병사”에 의해 자행된 고문의 자세한 묘사는 계속된다. 칼로 그녀의 유방을 그었고, 그들은 (그녀를 잘 볼 수 있도록)그녀에게 일어나서 빙빙 돌고,

앉아라, 일어나라, 누워라, 일어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내 달라고 하면서 처음에 자상(刺傷)을 입었을 때 피가 멈출 수 있게 지혈할 것을 달라고 애원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니가 설사 그렇게 안 느끼더라도 피는 피다워야지. 그게 바로 니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증거야. 너는 그걸 느낄 거야. 넌 조금만 기다리면 돼”. “자, 이제” 그 병사가 말했다. “너는 음모가 없으니 진짜 아름다운 회교도야. 이제 진정한/완전한... 그리고 너는 내가 그렇게 할거라는 걸 알지?” 나는 그들의 위협에 벌벌 떨었어요. 나는 또 천천히 잘려졌어요. 그래서 진짜 피가 흐르는 것을 느끼는 것이 어떤지, 얼마나 느끼는지...

사넬라는 같은 날 모든 남성들에게 당한 더 심한 고문과 구타, 오랄 섹스에 대해서도 증언해 주었다. 그녀는 그리고 나서 강제로 옷이 벗겨진 채로 차디찬 나뭇가지 위에 누워졌고 제 명의 병사들에게 차례로 강간당했다 그 중 한 병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잔말 말고 누워 입 닥쳐! 그래서 너 정말 남자랑 자본 적 없어? 있다고? 음, 이제 너는 남자, 진짜 남자가 무엇인지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안 벗겨진 니 것...(회교도의 할례 의식과 관련된 말).

사넬라는 고문과 강간 후에도 살아남았고 죄수 교환으로 풀려났다. 그녀는 임신능력을 상실했으며, 현재 크로아티아의 망명자 캠프에서 살고 있다.

세르비아 병사가 회교도 피해자에게 한 할례에 대한 언급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할례 했다’라는 말 대신에 그는 ‘(껍질을)벗기다’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 말은 좀 더 혼하게는 바나나 같은 과일의 껍질을 벗길 때 사용된다. 이 말의 함의는 회교도들의 폐니는 기형적이며, 불완전하고, 손상되고, 거세된 반면에 세르비아 병사의 성기는 완전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세르비아 병사)의 잔인한 조롱은 그가 사넬라에게 임박한 강간이 학대 행위가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모욕을 통해, 그는 고문의 진짜 대상을 분명히 했다. 그의 고문 대상은 (사넬라가 아니라)자기 여자의 순결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긴 그녀의 약혼자(남성)이다. 사넬라의 설명은 강가(ganga) 노래를 상기시킨다. 여기서 자르고 면도하는 행위는 은유가 아니라 실체가 된다.

클라우스 쾨벨라이트에 따르면, 고문의 효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 희생자를 파괴하는 것, 희생자가 ‘위협’적인 존재로 구현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문하는 사람이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새로운 인간의 탄생은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피해자)이 죽음으로서 가능하다. 고문하는 사람은 고문당하는 사람의 몸의 파괴를 통해 새로운 몸을 얻는다.

몸이 남성의 여성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각 인종들간의 갈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병사가 사넬라의 몸을 전형적인 회교도로 만들기 위해 “자르고 면도하고” 하는 증언에서 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그녀의 육체에 “인종성(ethnicity)”을 각인했다. 인종성의 각인은, 사람들이 다른 인종과 다른 피를 가졌다고 믿는 영역의 긴장과 관련이 있는데, 그 다름은 신체적 실험을 통해 증명된다. 여기서 여성들은, 암묵적으로 불임이 되거나 다른 만족의 명칭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공포를 강하게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항상 침략자의 아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전쟁 문화의 변형

강간의 정치적 이용은 전쟁의 진행과 궤를 같이한다. 1991년 크로아티아에서 여성에 대한 강간이 처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 정부는 그 사안 전반에 대해 침묵했다. 1992년 봄, 나는 크로아티아 병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크로아티아 윤리위원회에서 임신한 크로아티아 여성과 너무 늦어 태아를 낙태할 수 없는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가 말해 준 이 정보는 “일급 비밀”로서 언론에도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같은 비극이 발생했을 때도, 아니 사태가 더 끔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왜 사건 처리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첫째는 크로아티아에서 발생한 사건보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발생한 피해자가 비울적으로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스니아의 회교도 여성은 크로아티아의 크리스찬 여성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답은 문제 발생만큼이나 간단하지 않다. 크로아티아 여성들이 당한 전쟁 강간에 대한 침묵하는 것은 크로아티아 남성들의 체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크로아티아 남성들의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스니아에서 크로아티아 여성, 회교도 여성이 모두 강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 보다 보스니아에서 일어난 전쟁 강간이 더 규모가 크다. 그러나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회교도 여성들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이렇게 단순하게 척도화 하는 것은 이 같은 잔학상의 실재를 숨기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보스니아 정부는 여성에 대한 범죄를 공식화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표명했다. 세르비아 군인에 의해 보스니아 강간 캠프에서 대규모의 강간을 당한 보스니아의 피해여성들은 보스니아 정부가 서구의 군사 개입을 설득, 유인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되었다.

보스니아가 전쟁 강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덕분에, 희생자들은 그들의 고통을 사회의 문제로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개인적 불명예로 묘사한다. 여성들은 침묵의 벽 뒤에 숨게 되고, 공적인 수치심으로부터 그들의 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낙인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 당한 폭력에 대해 마지못해 얘기한다. 이혼 당한 여성들은 독신 여성이나 기혼 여성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잘 이야기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순결의식이나 결혼의 신성함 등에 대해 자유롭고 그들을 부끄러워 할 가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혼한 여성들도 그들에게 그러한 일이 있을 후로는 자기 마을로 돌아갈 수 없다고 내게 말해주었다. 그들이 당한 고통에 대한 수치심은 고향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큰 것이다. 평화시에도 너무 섹스를 밝힌다고 비난받아왔던 젊은 여성들은 그들의 섹슈얼리티 때문에 그들의 가족을 불명예스럽게 한다고 여겨졌다. 명예와 수치심에 관한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성교 동의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고 일단, 여성 개인의 몸에(남성의 성기가)관통이 되면, 그녀 가족의 사회적 지위는 손상을 입게 된다.

수많은 증언을 통해, 몇 명 여성들은 그들이 자신의 몸을 이용하는 것이 그들의 수치심으로부터 타인의 시선을 딛 데로 돌렸다고 주장한다. 즉, 그들의 “월경혈”은 세르비아 병사가 강간하는데 방해물이 되는 예로서 증명된다. 몇몇 증언들을 들어보면 여성들은 잡히거나 강간당할 때, “생리중이라 안돼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강간에 의한 임신은 인종 정체성의 결정적 위기를 나타낸다. 강간당한 여성은

강간으로 인해 태어나거나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Chetniks(세르비아 극단론자)로 표현한다. 많은 이들은 그들이 자신의 아이에 대한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중오 때문에 그 아이를 상하게 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임신은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위기를 초래한다. 크로아티아계 가톨릭 교회, Cardinal Kuharic의 지도자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만 한다고 그의 신념을 표현하는 반면, 이집트 출신의 회교 지도자는 보스니아 회교도 공직자들에게 임신 4개월 후에 낙태하는 종교적 법령을 통과시킬 것을 재촉했다.

평화시와 전시 두 시기 모두, 여성들의 몸은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를 이동한다. 한편으로 여성의 몸은 남성들 명예의 상징적 저장소(용기)이며, 남성 경쟁의 상징적 영역이다. 그들은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다른 남성 집단의 여성들의 몸을 침범(강간, 납치)함으로써 남성성을 경쟁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 개인의 몸은 (가계)혈통의 축소판이다. 이 혈통 그 자체는 하나의 몸으로 인식된다. 그것의 약점은 몸의 구멍이라는 데 있다. 남성은 여성에게 모욕을 가하는 것을 전체 혈통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한다. 이 부분은 여성의 재생산 능력과 관련이 있다. 이 명예 콤플렉스 근저에는 다른 집단의 남성이 자신의 여성을 임신시킬 것에 대한 공포와 그 결과 “이방인”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한 공포가 있다. 이러한 혈통 경쟁 속에서는 지속적인 피해 혈통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성을 강간하고 세르비아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이 명예 콤플렉스의 아래 놓여있는 무의식적 공포의 논리적 연장선상에 있다. 군인들이 했던 행동은, 그들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자리잡은 공포가, 실제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공포의 표현이다.

대체로 혈통의 개념은 인종주의로 확대된다.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크로아티아인들은 세르비아, 회교도 혈통에 대항하여 하나의 혈통이 되어간다. 이러한 혈통의 상징적 몸은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가 된다. 인종 청소는 그들이 국가 영토를 “치너지”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침략의 강간을 보호하는 안전한 장소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침범되고 강간당하고 임신되는 집단으로서 여성의 이미지는 지속된다. 개개인 여성에 대한 강간은 더 큰 영토에 대한 침략 행위의 축소판이다.

전쟁 무기로서 강간이 사용되는 것은 일탈이 아니다. 평화시의 (일상)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전쟁시 그러한 행위를 완전히 해석할 수 없다. 지역(로컬)에서의 전쟁 강간의 기원과 성적인 고문의 독특한 동기는 군사 정책 결정권자에 의해서 저질러지든, 개인 병사에 의해 저질러지든 변명되거나 용서될 수 없다. 성적인 고문은 (고문으로 인해 이미) 파괴되고, 극도의 분노로 뿌리뽑힌 인간의 고통을 극대화한다.

모든 전쟁, 대학살에서 개인들은 사회적/정치적 환타지에서 나온 집단적인 행위에서 구축되어진다. 이러한 비극은 실제로는 (개인에게 가해지는) 개인적인 것이고, 그들의 삶은 분열되고(찢겨지고) 파괴되고 고통은 극대화된다. 그리고 나서 집단적인 환상으로 속에서는 폐된다.